

마음의 청정성을 회복하는 길

목정배

동국대학교수 · 불교학과

세상이 복잡하다보니 가만히 정좌하여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 또한 그러한 시간을 가지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저 하루하루 되는 데로 살려고 한다. 삶의 여유를 가지는 편이 여러 형태로 발전되고는 있지만 생각하고 사색하는 일은 밀쳐 두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니 사람들은 들뜨는 일은 잘하지만 곰삭고 가라앉는 일은 눈을 닦고 찾으려 하여도 힘들다. 새벽녘에 한번씩 심호흡을 하면서 자기자신을 깊게 생각해야 한다.

옛 사람들은 신 새벽에 찬물에 얼굴을 씻고 독서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 하였다. 그러나 요새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 책을 볼 사이 없이 건강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다. 건강이 최고라 하여 아침 체조를 너나 없이 한다. 조기 축구, 베드민트, 조깅, 요가, 쿡후 등 많은 건강운동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이다. 나무랄 수 없는 일이다. 모두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행복을 증강시키기 위하여, 사업을 촉진하는 데 그 힘을 축적하기 위하여 건강체조를 한다고 할 것이다. 건강은 육체의 기능에 활력을 주는 일이고, 養性은 정신에 청정성을 가져오게 할 것이다. 정신의 청정성이 결여되면 모든 생활 형상이 이그려질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양성의 길을 열어 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눈만 뜨면 체조, 식도라, 행락성 기본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으니 어디 마음의 청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건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苦笑하고 말았다. 무언가 하면 독서를 하려고 하였다니 독서를 할 수 없다고. 차라리 독서를 하는 것보다 등산, 낚시, 볼링, 골프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왜냐고 다그쳐 물었더니 근간 쉽게 구해서 읽을 수 있는 책, 신문, 잡지, 주간지, 만화, 각종 책들이 毒書이니 아예 읽지 않는 것이 정신에 좋은 일이라고 참 좋은 변명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毒書만 골라서 보려고 하였는지 그 심사를 헤아릴 수 없구나. 아닌게 아니라 우리의 감성을 유발하는 해독서, 해악서가 도시의 가판대, 서점의 한 구석을 점유하고 있으니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양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나위가 없다. 성품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따뜻하게 되어야 한다. 성품은 여러가지로 작용할 수 있다. 길들이는 대로 성품은 작용한다.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든 악한 짓을 하게 하든 별의별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성품이다. 그러나 성향이라고 하지 않는다. 성품은 어느쪽으로 향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양성한다는 것은 선한 방향으로 향하게 이끌어주어야 한다는 의미다.

독서를 한다는 의욕을 앞세워 毒書를 구하여 매일 매일 한권씩 읽는다면 저도 모르게 악성성향으로 물들게 된다. 악성으로 마음이 변하면 그 행위가 사악한 행동을 자행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악한 사람도 어떤 기연을 만나 참회록이나 종교서적도 접하게 되어 여기에 심취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착한 성향으로 발양하게 될 것이다.

유행을 휩쓰는 노래말에 젖어들어 가면 허무주의, 광폭성, 퇴폐성 쪽으로 기울게 된다. 노래의 빠른 속도, 이것이 폭주족을 만들어낸 한 소치일 것이다.

우리의 시조를 암송하거나 시조를 읊조리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가라앉게 될 줄 믿는다. 사람은 심원한 자기내심을 응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하루 종일 들떠 있는 성행으로 살면 안된다. 새벽 시간을 이용하여 오늘을 가라앉게 하여야 한다. 몸도 가라앉게 하고 마음도 진정시켜야 한다. 육체 운동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르게 움직이게 하는 운동을 하여야 한다. 그것이 무엇인가, 좋은 발원문, 시조, 경전을 소리내어 읽어 마음속 깊이 자기의 청정한 목소리가 내려가서 마음의 청정성이 아름답고 성스러운 성행으로 융숭치하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법이 오늘을 슬기롭게 사는 길이요, 청정성을 회복하는 길이 될 것이다.

뉴스	2	환경의 날에 열린 환경도서전·외
표지인물	4	독자들과 교감하는 책의 존재론 북디자인 정병규씨
초점	6	출판물 팬시화현상 심각하다 우리나라 북디자인의 몇가지 문제점
	7	북디자인 인력배출 어떻게 이뤄지나 정규대학 강좌 개설해 교육과정 정비해야
서평	8	윤사순 외 「공자사상의 발견」 — 최근덕 김석준 「한국산업화가론」 — 조대엽 9 울프 「과학은 지금 물질에서...」 — 박홍이 윌스 「유전자의 지혜」 — 백상기 10 강돈구 「한국근대종교와 민족주의」 — 이진구 조성기 「통도사 가는 길」 — 하응백 11 이순원 「압구정동엔 비상구가...」 — 김외곤
시론	12	야담류 역사소설 무엇이 문제인가 서점가에 70여종이나 선봬... 흥행 노린 상업성이 문제
출판화제	14	「속도전」 박차 가하는 번역물 시장 시사물과 소설류가 주종... 과당경쟁 폐해도
이 책 그 사람	16	「통역리서치」 펴낸 최정화씨 「검은 하늘 하얀 빛」 낸 오진수씨 17 「무협 학생운동」 낸 김영하씨 「밤에 응서라는 말...」 낸 이진명씨
해외출판	18	일본 출판유통업계의 지각변동 — 이봉호
세계의 책	20	막상막하의 어린이백과사전 둘 — 배병삼
청소년도서	22	출판협회 선정 '이 달의 청소년도서'
컬러화보	24	재개장 교보문고의 이모저모
	26	독자서평
	28	화제의 신간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
	40	신간목록
	48	프리즘/재미있는 책이야기/정기구독 안내